

山岳型 國立公園의 訪問客 動機要因과 誘因要因의 檢定^{1*}

韓祥烈² · 崔 寬³ · 李周熙⁴

Testing the Push and Pull Factors for National Parks in Mountain Regions^{1*}

Sang-Yoel Han², Kwan Choi³ and Ju-Hee Lee⁴

요 약

본 연구는 4개의 산악형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탐방객들의 주요 방문 동기요인(push factor)과 이들 국립공원의 유인요인(pull factor)을 도출하고, 규명된 방문요인과 유인요인간의 입체적인 관계규명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악형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동기요인으로는 가족중심의 자연·문화체험, 일탈성, 건강, 사회성·신기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유인요인으로는 시설·문화재, 자연자원, 접근성의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방문 동기요인과 유인요인간의 상호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기요인과 유인요인들은 상호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유인요인을 기준으로 동기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립공원의 시설·문화재 유인요인은 자연·문화체험 동기와 사회성·신기성 동기에 양(+)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자원 유인요인은 자연·문화체험, 일탈성, 건강, 사회성·신기성 등 모든 동기요인에 양(+)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근성 유인요인에 있어서는 건강동기에 양(+)¹의 영향을 받는 반면, 자연·문화체험 동기에는 음(-)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push and pull motivators for Soraksan, Kayasan, Naejangsan, and Pukhansan national parks in mountain region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sh and pull factors. The result showed that four dimensions were derived from 12 push items, which were cultural and natural experience, escape and rest, health, and socialization and novelty motivators. Three dimensions also were derived from 12 pull items, which were facilities and culture, nature, and accessibility. The push and pull dimensions were correlated and regressed against each other. Given the natur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push and pull factors, facilities and culture pull factor was affected by the cultural and natural experience motivation. Nature pull factor had strongly associated with culture and nature, escape and rest, health, and socialization and novelty motivations. Finally, accessible attraction pull factor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health motivator, however, had a negative with cultural and natural experiencing motivation.

Key words : push factor, pull factor, national park, factor analysis

¹ 接受 2000年 3月 29日 Received on March 29, 2000.

² 경북대학교 Post-Doc. Department of Fore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702-701, Korea.

³ 경북대학교 임학과 Department of Fore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702-701, Korea.

⁴ 대구대학교 산림자원학과 Department of Forestry, Taegu University, Kyungsan 712-714, Korea.

* 이 논문은 1999년도 경북대학교 Post-Doc. 연수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서 언

국립공원에서의 관광·휴양활동은 주체인 방문객이 객체인 특정 국립공원을 방문함으로써 성립된다. 이와 같이 여행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여행결정과정을 방문객의 동기요인(push factor)과 여행방문지의 유인요인(pull factor)의 개념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있다(Crompton, 1979; Dann, 1977; Pyo, Mihalik and Uysal, 1989; Uysal and Hagen, 1993). 이 개념은 여행방문객이 자신의 내적인 여행 동기요인에 의하여 자신의 여행의사를 결정하게 되고, 다음으로 여행지 자체가 가지는 외적인 유인요인에 의하여 특정 방문목적지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결합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여행목적지가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방문하려는 여행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여행에 선행하는 어떠한 필요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되며, 여행목적지는 여행자가 지닌 다양한 유인요소인 매력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Dann, 1977). 이러한 개념을 현재 우리 나라 국립공원 방문객에게 적용하면, 국립공원 방문객들은 어떤 내적인 동기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의 여행을 결정하게 되고, 다음으로 국립공원의 유인특성에 의하여 어떤 특정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동기요인과 특정국립공원의 유인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국립공원을 여행목적지로 선택하게 되는 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탐방객 만족과 공원관리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안이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 통과하여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을 마지막으로 현재 총 20개의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국립공원을 자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악형 국립공원이 16개소, 해상형 국립공원 2개소, 해안형 국립공원 1개소, 도시국립공원 1개소로 지정되어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1999).¹⁾

그러나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에 있어서도 이들 국립공원이 지닌 자연자원과 문화·역사자원 특성과 여행거리, 그리고 이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다양한 방문동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시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자연자원이 매우 수려하고 다른 국립공원에 비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탐방객 또한 전국에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야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관람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탐방객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내장산국립공원은 단풍철인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약 2-3주에 걸쳐 연간탐방객의 약 2/3가 방문하여 특정계절에 탐방객들이 집중되고 있는 특성을 지닌다(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다른 국립공원과는 달리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적 특성으로 도시근린공원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 가운데 설악산, 가야산, 내장산, 북한산의 4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탐방객들의 주요 방문 동기요인과 이들 국립공원의 유인요인을 도출하고, 규명된 방문요인과 유인요인간의 입체적인 관계규명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악형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여행의 동기요인과 유인요인

1. 여행의 동기요인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여행동기는 심리적 측면과 생리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 목적의 여행에 있어서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심리적 동기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Crompton(1979)은 여행의 심리적 동기는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발생된 요구이며, 이미지나 제한요소(시간, 경제, 여행능력), 그리고 문화적 동기가 사람들의 목적지 선택과정을 설명하는데 개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7개의 사회·심리적 동기(socio-psychological

변산반도가 있으며, 해안형 국립공원으로는 태안 해안, 해상형 국립공원으로는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이 있으며, 도시형 국립공원으로는 경주국립공원이 있다.

1) 산악형 국립공원은 지리산, 설악산, 치악산, 한라산, 오대산, 속리산,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motive)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서의 탈출(escape), 자기탐구와 평가(exploration and evaluation of self), 기분전환(relaxation), 명예(prestige), 회귀(regression), 친족유대(enhancement of kinship relationship),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촉진(facilitation of social interaction)이 그것이다.

McIntosh(1977)는 여행의 기본동기를 건강동기(physical motivator), 문화적 동기(cultural motivator), 사회적 동기(interpersonal motivator), 그리고 지위상향적 동기(status and prestige motivator)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건강동기는 휴식, 스포츠참여, 해수욕, 쉬면서하는 유흥 등 주로 건강과 관련된 것이며, 문화적 동기는 다른 지역을 여행하여 그곳의 문화에 대하여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한 동기이다. 사회적 동기는 일상생활을 떠나 새로운 환경의 체험을 위한 동기를 말하며, 지위상향적 동기는 개인적 발전, 존경심 및 명예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제시된 여행동기에서 어느 한 가지 동기만이 여행에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여행동기를 고려할 때에는 개인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교육의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이외에도 Thomas(1965)는 여행동기를 교육과 문화, 휴식의 즐거움, 민족적 유산, 그리고 건강·모험·경제 등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여행 방문동기 요인 중 탈출동기에 있어서 Crompton과 McKay(1997)는 탈출동기를 사회생활에서 기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압력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개인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반면, Manfredo등(1996)은 군중으로부터의 탈출(escape of crowds) 개념에서 접근하였다. 이외에도 Lee와 Crompton(1992)은 신기성(novelty)을 여행 방문동기에 포함하기도 하였으며, Manfredo등(1996)은 배움과 발견(learning and discovery)을 동기에 포함하였다.

2. 여행방문지의 유인요인

여행지의 유인요인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Burkart & Medlike(1981)는 여행목적지의 접근성(accessibility), 매력성(attraction), 이미지(image), 시설(facility), 유형, 산업기반시설에 의하여 유인요인이 결정된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접근성은 여행객의 주거지에서 목적지까지 접근성에 근거한 개념으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에 의한 경제적 거리까지를 포함하여 측정되는 개념이다. 이미지는 여행객이 지니고 있는 일련의 여행 목적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시설은 위생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행객에게는 즐거움의 요소로 작용한다. 유형은 감상형(경관, 자연, 문화유적), 휴양형, 오락형, 스포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반시설은 교통수송시설이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의료시설 등을 포함한다.

Robinson(1976)은 관광자원의 유인요소로 경관, 위락시설, 역사·문화유적, 접근성, 숙박시설을 들고 있다. 또한, Haanti(1986)는 관광자원의 요건으로는 색다른 경험(different experience)과 접근성 및 경제성(ease and economy)을 제시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제시되는 여행지의 유인요인으로 산업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오락성(entertainment),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그리고 자연동식물관찰(wildlife viewing) 등으로 정리·제시되고 있다(Crawford & Godbey, 1987; Tian, et al., 1996; Jackson, 1983). 이들 연구들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은 여행지의 주차시설, 교통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방문객서비스, 안전성 등과 같은 무형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한다. 오락성은 실내·외의 휴양활동이나 문화적 체험, 먹거리의 즐거움 등을 포함하며, 물리적 환경에는 여행지 지역의 기후조건이나 휴식조건, 그리고 경관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료 및 방법

1. 동기요인과 유인요인의 구성

앞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여행 동기요인과 유인요인이 여행관광지 전반에 관련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우리 나라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국립공원 탐방객의 방문 동기요인과 국립공원의 유인요인은 어떠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동기요인과 유인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항목의 선택과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동기요인과 유인요인에 기초하여 국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동기요인과 유인요인을 각각 12문항씩 작성하였다(표 1).

Table 1. Push and pull items

Push Items	Motivator	Pull Items	Characteristics
Escape	Escape & rest	Attractive scenery	Nature
Rest & relaxation		Wildlife	
Health and fitness	Health	Education	
Hiking and climbing		Rest place	
Cultural experience	Natural & cultural experience	Historical monument	Culture
Scenery		Sanitary facility	Facilities
Wildlife viewing		Lodging facility	
Learning		Parking facility	
Vacation		Socialization	Development
Family togetherness	Tour information		
Social interaction	Transportation system		
Novelty	Travel cost		

국립공원 방문에 대한 동기요인으로 설정한 항목으로는 탈출·휴식동기 2항목, 건강동기 2항목, 자연·문화적 동기 4문항, 그리고 사회적 동기 4항목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출·휴식동기에 포함된 항목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와 '휴식과 기분전환을 위하여'로 구성하였으며, 건강동기 항목에는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하여'와 '산책이나 등산을 위하여'로 구성하였다. 자연·문화적 동기항목은 주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에 관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하여', '야생 동·식물을 보기 위하여', '자연을 배우기 위하여', '문화유적을 감상하기 위하여'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동기는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동료들과의 친목을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로 설정하였다.

국립공원의 유인요인에 대한 항목의 구성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의 매력성 4항목, 시설 5항목, 문화·역사성 1항목, 접근성 2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연자원 매력성 요인에서는 연구대상이 산

2) 국내 관광경영학 전공교수와 산림휴양 전공교수 각각 1명의 자문을 받아 산악형 국립공원에서의 적용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였다. 각각의 방문 동기요인과 유인요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는 12문항보다 많은 수의 항목들이 제시되어야 하나,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가 전국적이고, 현지 방문 탐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시간·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설문항목으로 축소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의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강미희·김성일, 1999).

악형 국립공원이므로 주로 자연환경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하였는데,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야생 동·식물이 많다', '자녀의 자연교육장으로 적합하다', '휴식이나 기분전환을 취할 장소가 많다'로 구성하였다. 시설 요인에는 '위생시설(화장실, 식수대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주차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와 같은 하드웨어(hardware)적인 시설측면과 함께, '관광정보와 안내판이 잘 구비되어 있다'와 같은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접근성에 관한 요인으로는 '교통이 편리하다'와 '여행비용이 저렴하다'로 구성하여 접근의 용이성과 함께 여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까지도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화역사성은 '역사문화 유적이 많다'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자료수집

연구대상인 산악형 국립공원 설악산, 가야산, 내장산, 북한산에 대한 현지 설문조사(on-site survey)는 1999년 7월말부터 11월초까지 4개 국립공원의 성수기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총 1,843명의 탐방객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설문문항 가운데 한 문항이라도 기입하지 않은 360명의 응답자를 제외한 1,483명의 유효응답자의 자료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표 2).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제시된 동기항목과 유인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 지를 개인적으로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self-administered)으로

Table 2. Survey sample

National Park	Dates the Survey	Total Survey		Valid Survey	
		N	%	N	%
Soraksan	July 24 - 25, 1999	400	21.7	350	23.6
Kayasan	July 31 - August 1, 1999	414	22.5	304	20.5
Naejangsan	November 6 - 7, 1999	503	27.3	394	26.6
Pukhansan	August 7 - 8, 1999	526	28.5	435	29.3
Total		1,843	100	1,483	100

Table 3. Respondents' characteristics

Variable	Class	Sorak		Kaya		Naejang		Pukhan		Total	
		N	%	N	%	N	%	N	%	N	%
Gender	male	289	66.4	212	60.6	183	60.2	288	73.1	972	65.5
	female	146	33.6	138	39.4	121	39.6	106	26.9	511	34.5
Age (years)	under 19	18	4.1	22	6.3	9	3.0	37	9.4	86	5.8
	20's	134	30.8	138	39.4	120	39.5	90	22.8	482	32.5
	30's	139	32.0	83	23.7	76	25.0	101	25.6	399	26.9
	40's	107	24.6	72	20.6	70	23.0	92	23.4	341	23.0
	50's	26	6.0	23	6.6	18	5.9	51	12.9	118	8.0
	60's	8	1.8	7	2.0	11	3.6	15	3.8	41	2.8
	over 70	3	0.7	5	1.4	-	-	8	2.0	16	1.1
Education level completed	elementary	5	1.1	9	2.6	1	0.3	2	0.5	17	1.1
	middle	5	1.1	14	4.0	14	4.6	46	11.7	79	5.3
	high	119	27.4	110	31.4	104	34.2	118	29.9	451	30.4
	university	306	70.3	217	62.0	185	60.9	228	57.9	936	63.1
Monthly income (unit : 10,000won)	<100	51	11.7	72	20.6	78	25.7	81	20.6	282	19.0
	<200	164	37.7	153	43.7	134	44.1	152	38.6	603	40.7
	<300	126	29.0	72	20.6	59	19.4	107	27.2	364	24.5
	<400	50	11.5	31	8.9	26	8.6	24	6.1	131	8.8
	<500	19	4.4	8	2.3	2	0.7	12	3.0	41	2.8
	500<	25	5.7	14	4.0	5	1.6	18	4.6	62	4.2
Travel time (Min.)	< 60	7	1.6	14	4.0	19	6.3	194	49.2	234	15.8
	<120	12	2.8	131	37.4	97	31.9	148	37.6	388	26.2
	<180	4	0.9	93	26.6	64	21.1	36	9.1	197	13.3
	<240	32	7.4	59	16.9	38	12.5	6	1.5	135	9.1
	<300	106	24.4	31	8.9	48	15.8	3	0.8	188	12.7
	300<	274	63.0	22	6.3	38	12.5	7	1.8	341	23.0
Over night	yes	53	12.2	252	72.0	255	83.9	387	98.2	947	63.9
	no	382	87.8	98	28.0	49	16.1	7	1.8	536	36.1
Mode of transportation	auto car	322	74.0	243	69.4	177	58.2	85	21.6	827	55.8
	bus	35	8.0	18	5.1	53	17.4	4	1.0	110	7.4
	rent bus	56	12.9	77	22.0	40	13.2	60	15.2	233	15.7
	airplane	3	0.7	2	0.6	3	1.0	1	0.3	9	0.6
	train	13	3.0	5	1.4	21	6.9	38	9.6	77	5.2
	other	6	1.3	5	1.4	10	3.3	206	52.3	227	15.2

로 설계되었으며, 제시된 항목들은 모두 5점 척도 (five-point 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5: 매우 동의함, 3: 보통,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기

항목과 요인항목 이외에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사항과 방문 국립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표

Table 4. ANOVA of push items

Push Items	Means of Push Items				F-Value
	Sorak	Kaya	Naejang	Pukhan	
Escape	3.71a	3.49b	3.43b	3.54b	4.83*
Rest & relaxation	3.93a	3.64b	3.71b	3.84a	7.61*
Health and fitness	3.07bc	3.05c	3.22b	3.91a	54.12*
Hiking and climbing	3.24b	3.27b	3.29b	3.75a	18.22*
Cultural experience	2.75b	3.47a	2.71b	2.32c	74.96*
Scenery	4.12a	3.76b	3.99a	3.64b	21.32*
Wildlife viewing	2.65a	2.34bc	2.48b	2.24c	12.62*
Learning	2.74a	2.27c	2.46b	2.09c	19.82*
Vacation	3.09a	2.60b	2.07c	2.58b	54.39*
Family togetherness	3.64a	3.01c	3.32b	2.87c	28.95*
Social interaction	3.06b	3.23b	3.46a	3.22b	5.87*
Novelty	2.29ab	2.10c	2.19bc	2.41a	5.33*
N	350	304	394	435	

a,b,c Duncan grouping

* Significant at the 0.01 probability level.

3)과 같다.

3. 분석방법

4개 산악형 국립공원의 방문과 관련된 동기요인 및 유인요인을 도출하기에 앞서 먼저, 사전적으로 제시된 동기항목과 유인항목의 5점 척도 평가를 통하여 국립공원별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지를 분산분석(ANOVA)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사전에 미리 설정화된 동기요인과 유인요인의 분류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다측면적 분류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하여 직각회전(varimax)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적용하여 분류를 시도한다. 이때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크기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MSA 계수(Kaiser의 표본적합도 계수)를 이용하며, 본 연구의 목적이 요인수의 제한적인 규명이 아니라 요인분류 자체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의 요인으로 한정하여 도출한다. 이때, 도출된 요인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4 이상인 항목으로 제한한다.

한편, 도출된 동기요인과 유인요인에 대하여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을 실시하여 도출된 요인들에 포함된 항목들을 동일한 하나의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동기요인들과 유인요인들간의 상호 관계규명을 위하여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기요인과 유인요인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상호 관련성을 입체적으로 규명한다.

실증분석 결과

1. 국립공원별 방문동기와 유인항목의 비교

4개 국립공원에 대한 방문객의 동기요인과 유인요인 각각의 12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와 국립공원별 다중 분산분석 검증결과는 아래의 <표 4>와 <표 5>와 같다. 모든 동기항목과 유인항목은 1% 유의수준에서 국립공원간 항목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동기요인 중 탈출·휴식 동기요인의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항목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식과 기분전환을 위하여' 항목에서는 설악산과 북한산이 각각 다른 국립공원보다도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건강동기 요인인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하여'와 '산책이나 등산을 위하여' 항목에서는 북한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자연·문화 동기요인인 '문화유적을 감상하기 위하여' 항목에서는 가야산국립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하여' 항목에서는 설악산과 내장산이, '야생 동·식물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자연을 배

Table 5. ANOVA of pull items

Pull Items	Means of Pull Items				
	Sorak	Kaya	Naejang	Pukhan	F-Value
Attractive scenery	4.31a	3.96b	3.75c	3.76c	42.11*
Wildlife	3.04a	2.59b	2.46b	2.51b	33.59*
Education	3.45a	3.18b	3.11b	2.83c	28.60*
Rest place	3.38a	3.37a	2.98c	3.22b	10.87*
Sanitary facility	3.11ab	3.23a	2.99b	2.68c	21.84*
Lodging facility	3.19a	2.70b	2.64b	2.16c	96.15*
Parking facility	2.59c	2.93a	2.70bc	2.79ab	7.76*
Development	3.36b	3.50a	3.27b	3.13c	11.63*
Tour information	3.02ab	3.08a	2.91b	2.70c	12.68*
Historical monument	2.83b	3.70a	2.61c	2.40d	150.4*
Transportation system	2.95c	3.31b	2.98c	3.71a	47.50*
Travel cost	2.42c	3.08b	2.92b	3.54a	73.92*
N	350	304	394	435	

a, b, c Duncan grouping

* Significant at the 0.01 probability level.

우기 위하여' 항목에서는 설악산이 다른 국립공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동기요인에서는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항목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항목에서는 내장산이, '새로운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항목에서는 북한산이 각각 높게 평가되었다.

<표 5>의 4개 국립공원에 대한 유인요인에 있어서는 자연자원의 매력성 요인에서 '자연경관의 수려하다', '야생 동·식물이 많다', 그리고 '자녀의 자연교육장소로 적합하다' 항목에서 설악산이 다른 국립공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휴식이나 기분전환을 취할 장소가 많다' 항목에서는 설악산과 가야산국립공원이 각각 높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시설요인에서는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주차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 항목에서는 가야산국립공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항목에서도 설악산과 함께 가야산국립공원이 높게 평가되었다. 문화·역사성 요인인 '문화유적이 많다' 항목에서도 가야산국립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요인에서는 '교통이 편리하다'와 '여행비용' 항목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이 도시에 가장 근접한 이유로 기대와 같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2. 요인분석 결과

1) 동기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여행 동기요인의 도출을 위하여 동기항목들을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차원으로 줄이고자 실시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4개로 나타났으며, 4개요인의 총분산설명력은 57.7%로 나타났다. 여기서 각 요인에 대한 정의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다항목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4번째 요인 항목인 '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와 '새로운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항목의 Cronbach's alpha 0.424를 제외하고 다른 동기요인들은 0.629~0.679까지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이들 3가지 요인들에 포함된 항목들은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MSA 계수값은 0.687로 요인분석을 위한 만족스런 표본크기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도출된 4개의 동기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3) 신뢰도(reliability) 계수(Cronbach's alpha)에 대한 판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응용분야에서는 신뢰도 0.9이상, 기초연구에서는 0.8이상, 그리고 탐색적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이면 하나의 동일개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다(서태양, 1991).

Table 6.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on the push items

	Component				Communalities	Reliability
	1	2	3	4		
Natural & Cultural Experience						
Vacation	.455				.304	.679
Family Togetherness	.694				.616	
Cultural Experience	.585				.462	
Aesthetic Beauty	.357				.268	
Wildlife	.680				.562	
Education	.795				.651	
Escape						
Escape		.825			.685	.629
Rest & Relaxation		.793			.704	
Health						
Health and Fitness			.832		.735	.679
Hiking and Climbing			.860		.755	
Socialization and Novelty						
Social Interaction				.730	.566	.424
Novelty				.724	.621	
Eigenvalue	2.326	1.598	1.598	1.407		
% of Variance	19.379	13.317	13.314	11.724		
Cumulative %	19.379	32.696	46.010	57.733		

Table 7. ANOVA of push factor scores

Push Factors	Means of Factor Scores				
	Sorak	Kaya	Naejang	Pukhan	F-Value
Natural & culture experience	.364a	.029b	.042b	-.396c	43.65*
Escape	.240a	-.156b	-.136b	-.021b	13.54*
Health	-.244b	-.136b	-.021b	.240a	52.82*
Socialization and Novelty	-.112b	.114a	.034ab	-.004ab	3.52
N	350	304	394	435	

^{a,b,c} Duncan grouping

* Significant at the 0.01 probability level.

면, 첫 번째는 '가족중심의 자연·문화체험' 요인으로 6개의 동기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산설명력은 19.4%로 요인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항목으로는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하여', '문화유적을 보기 위하여',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하여', '동·식물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자녀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항목들로 주로 가족중심의 자연·문화체험을 위하여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이 강한 동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일탈성' 요인으로 이는 Crompton과 McKay (1997)가 제시한 개인적 측면에서의 탈출동기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기 위하여'와 '휴식과 기분전환을 위하여'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산설명력은 13.3%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건강' 요인으로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하여'와 '산행과 등산을 위하여'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산설명력은 13.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동료들과 친목을 위하여'와 '새로운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는 동질성이 확인되지 않아, 요인을 2가지 설문문항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성 및 신기성'으로 정의하였으며, 분산설명력은 11.7%로 나타났다.

도출된 4개의 동기요인에 대하여 각 요인들이 국립공원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이용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인 '가족중심의 자연·문화체험' 요인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산국립공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인 '일탈성' 요인에 있어서는 설악산국립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3개 국립공원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인 '건강' 요인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3개 국립공원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요인인 '사회성 및 신기성'에서는 모형에 대한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어 각 국립공원별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인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국립공원의 유인요인(pull factor)의 도출은 동기요인의 도출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3개로 나타났으며 총분산설명력은 53.1%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각 요인들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677~0.736으로 분리된 각 요인들에 포함된 항목들의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전체 MSA 계수값에 있어서도 0.781로 요인분석을 위한 만족스런 표본크기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도출된 3개의 유인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은 '시설 및 문화재'에 관련된 요인으로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산설명력은 20.4%로 요인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항목으로는 '위생시설', '관광정보와 안내판', '주차시설', '적절한 개발', '숙박시설', 그리고 '문화유적'들로 주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국립공원 내의 문화재를 나타내는 항목들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자연자원' 요인으로 '자연경관', '야생동식물', '자연교육', '휴식장소'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산설명력은 18.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접근성' 요인으로 '교통편리성'과 '여행비용'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산설명력은 14.1%로 나타났다.

도출된 3개의 유인요인 점수들이 국립공원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첫 번째 요인인 '시설 및 문화재' 유인요인에 있어서는 가야산국립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산국립공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인 '자연자원' 유인요인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내장산과 북한산국립공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인 '접근성' 유인요인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설악산국립공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8.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on the pull items

	Component			Communalities	Reliability
	1	2	3		
Facilities & Culture					
Recreation facility	.701			.527	.722
Tour information	.757			.585	
Parking facility	.625			.416	
Development	.480			.386	
Lodging facility	.596			.477	
Historical monument	.522			.391	
Nature					
Attractive scenery		.682		.485	.677
Wildlife		.703		.522	
Education		.786		.652	
Rest place		.567		.427	
Accessibility					
Transportation system			.845	.736	.736
Travel Cost			.877	.770	
Eigenvalue	2.451	2.236	1.687		
% of Variance	20.423	18.632	14.057		
Cumulative %	20.423	39.055	53.112		

3. 동기요인과 유인요인간의 입체적 관계분석

다음은 앞에서 도출된 4개의 동기요인과 3개의 유인요인에 대한 각각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이들 요인들간의 관계규명을 회귀분석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여기서 열(column)에 제시된 모형은 동기요인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하고 유인요인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행(row)으로 제시된 모형은 유인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동기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된 결과이다. 동기요인들과 유인요인들간의 회귀모형에 있어 회귀분석 모형의 F-검정 결과 모든 모형의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동기요인과 유인요인간에 상호 연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대한 논의의 관심은 국립공원의 유인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동기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경우로,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방문동기 유형에 따라 어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연자원형 국립공원에서는 설명변수인

동기요인들에 의하여 약 45%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추정모형의 beta-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동기요인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났다. 방문동기가 '자연·문화체험' 동기(.400)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건강' 동기(.082)가 가장 약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연·문화체험' 동기가 강한 방문객들은 자연자원형 국립공원을 가장 선호하며, 이외에도 '일탈성', '사회성 및 신기성', '건강' 동기 순으로 이들 동기가 강한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접근성 유인요인이 용이한 근거리형 국립공원에서는 설명변수인 동기요인들에 의하여 약 28%를 설명할 수 있는데, 방문동기가 '건강' 동기(.249)에서는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연·문화체험' 동기(-.117)는 음(-)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 동기가 강한 방문객들은 '접근성'이 용이한 국립공원을 선호하지만, '자연·문화체험' 동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한 국립공원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 '일탈성'과 '사회성 및 신기성' 동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ANOVA of pull factors

Pull Factors	Means of Pull Factors				F-Value
	Sorak	Kaya	Naejang	Pukhan	
Facilities & Culture	.058b	.393a	-.032b	-.389c	41.80*
Nature	.427a	-.001b	-.267c	-.264c	46.90*
Accessibility	-.480d	.026b	-.142c	.617a	103.61*
N	350	304	394	435	

a,b,c,d Duncan grouping

* Significant at the 0.01 probability level.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of push and pull factors

Pull Factor Dimension	Push Factor Dimension				F-value
	Culture and Nature (R ² =.452)	Escape and Rest (R ² =.157)	Health (R ² =.263)	Socialization and Novelty (R ² =.155)	
Facilities (R ² =.214)	.174* (7.517)	-.029 (-1.148)	-.018 (-.735)	.119* (4.643)	17.755*
Nature Resources (R ² =.446)	.400* (17.234)	.152* (5.904)	.082* (3.272)	.096* (3.724)	91.639*
Accessibility (R ² =.278)	-.117* (-5.051)	.028 (1.077)	.249* (9.919)	-.024 (-.949)	30.835*
F-value	126.334*	12.455*	36.546*	12.109*	

Note : The table delineates standardized beta-coefficient.

Numbers in parentheses are t-statistics.

* Significant at the 0.01 probability level.

마지막으로, 시설 및 문화체험 국립공원에서는 동기요인에 의하여 약 21%를 설명할 수 있다. 방문동기가 '자연·문화체험' 동기(.174)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성 및 신기성' 동기(.119)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탈성'과 '건강' 동기요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고찰

관광학 분야에서 여행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여행객의 동기요인과 여행방문지가 가지는 유인요인의 개념에 기초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여행방문객은 자신의 내적인 여행 동기요인에 의하여 여행의사를 결정하게 되고, 다음으로 여행지 자체가 가지는 외적인 유인요인에 의하여 특정 방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악형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국립공원을 여행목적지로 선택하는지와 이들 국립공원의 유인요인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산악형 국립공원인 설악산, 가야산, 내장산, 북한산 4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탐방객들의 주요 방문 동기요인과 이들 국립공원의 유인요인을 도출하고, 규명된 방문요인과 유인요인간의 입체적인 관계규명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악형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동기요인으로는 가족중심의 '자연·문화체험', '일탈성', '건강', 그리고 '사회성 및 신기성' 등 모두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유인요인으로는 '시설 및 문화재', '자연자원', '접근성'의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방문 동기요인과 유인요인간의 상호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기요인과 유인요인은 상호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국립공원의 유인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설 및 문화재' 유인요인은 주로 '자연·문화체험' 동기와 '사회성 및 신기성' 동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자원' 유인요인은 '자연·문화체험', '일탈성', '건강', '사회성 및 신기성' 등 모든 동기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근성' 유인요인에서는 '건강' 동기에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연·문화체험' 동기에서는 오히려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표 9>의 국립공원 유인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국립공원의 특성을 분류하여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시설' 유인점수가 가장 높은 가야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자연·문화체험' 동기가 강한 방문객이 선호하고 있으며, '일탈성'이나 '건강' 동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문객의 방문욕구를 보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과 문화체험에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package 개발을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연자원' 유인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접근성' 유인요인이 낮은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자연·문화체험'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외 모든 방문동기 요인에 있어서 동기가 강할수록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현재의 자연자원을 보호·유지하면서 방문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정책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유인요인점수가 가장 높아 도시형 국립공원이라 할 수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건강' 동기에 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자연·문화체험' 동기에는 반대로 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환경의 보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한 체육시설이나 등산로 개발 등 도시민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문헌

1. 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99 국립공원기본통계자료(운영분야). 국립공원관리공단.
2. 김성일·강미희. 1999. 국립공원 이용자의 방문동기 및 관리정책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차이. 한국공원휴양학회지 1(1): 1-7.
3. 서태양. 1991. 관광지 포지션(position)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4. Burkart, L.M. and J.P. Medlik. 1981. The Management of Tourism. London: Heineman, p.133.
5. Crawford, D.W. and G. Godbey.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of family leisure.

- Leisure Science 9 : 119-127.
6. Crompton, J.L. 1979. Motivation for pleasure vo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 : 408-424.
 7. Crompton, J.L. and S. McKay. 1997. Motives of vistors attending festival ev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 : 425-439.
 8. Dann, G. 1976. The Holiday was simply fantastic. *The Tourist Review* 31(3) : 19-13.
 9. Haahit, A.J. 1986. Finland's competitive as a destin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 : 21-27.
 10. Iso-Ahola, S.E. 1989. Motivation for leisure. In *Mapping the Past, Charting the Future*, E.L. Jason and T.L. Burton, eds., pp.247-279. Venture Publishing.
 11. Jackson, E.L. 1983. Activity-specific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Leisure Science* 6(1) : 47-60.
 12. Lee, T.H. and J.L. Crompton. 1992. Measuring novelty seeking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 732-751.
 13. Manfredi, M.J., B.L. Driver and M.A. Tarrant. 1996. A meta-analysis of the recreation experience : Preference sc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3) : 188-213.
 14. McIntosh, R.W. 1977. *Tourism Principle, Practice, Philosophies*, Second Edition(Columbus, Ohio : Grid, Inco, 1977), p.61-65
 15. Pyo, S., B. Mihalik and M. Uysal. 1989. Attraction attributes and motivations :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 : 277-282.
 16. Robinson, H. 1976. *A Geography of Tourism*(London : MacDonald and Evans, 1976), pp.42-44.
 17. Thomas, J.A. 1964. What Makes People Travel. *ASTA Travel News*(August 1964), pp.64-65.
 18. Tian, S., J.L. Crompton and P.A. Witt. 1996. Integrating constraints and benefits to identify responsive target markets for museum attrac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Fall) : 34-45.
 19. Uysal, M. and L.A. Hagan. 1993. Motivation of Pleasure Travel and Tourism. In *Encyclopedia of Hospitality and Tourism*, M. Khan, M. Olsen and T. Var, eds., pp.798-810. New York : VNR.